

전변의 화폭들을 수놓아온 승리의 2021년

더욱 강해진 국력, 높아가는 인민의 웃음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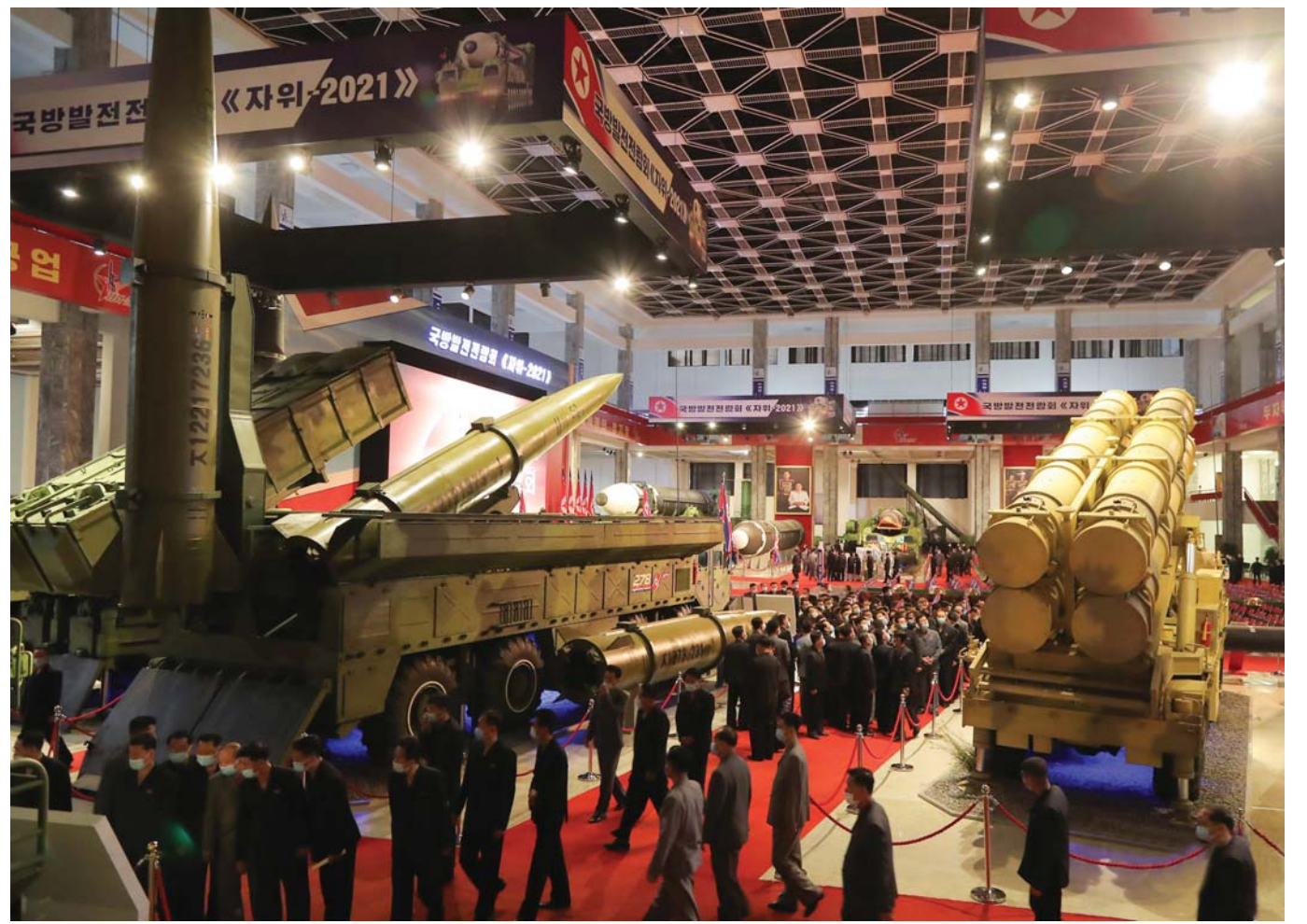
공화국은 올해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향상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삼지연시가 산간문화도시의 훌륭한 표준, 리상적인 본보기지방도시로 전변되어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있다.

삼지연시를 찾으신 원수님께서서는 인민들이 반기는 보람있는 일을 해왔다는 뿌듯한 마음을 금할데 없다고, 인민들의 목소리가 곧 삼지연시건설사업에 대한 총평으로 된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거듭 기쁨을 표시하였다.

비단 그뿐이 아니었다. 각 경제부문의 전반적발전을 위한 진로들이 명시되어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는 속에 지난 10월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이 성대히 개막되었다.

성대한 개막식과 전람회장을 통해 본 첨단무기들은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을 만방에 과시하는 중요계기로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치국회의에서 우리가 이룩한 성과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획된 전반사업이 활기차게 전진하고있음을 보여주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에 대한 자신심을 안겨주고있다고 하시면서 총적으로 올해는 승리의 해이라 당중앙위원회적인 평가를 내리시었다.

승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연도, 행운의 신이 가져다 주는 선사품도 아니다.

세상을 놀래우고 역사를 전진시키는 거대한 변혁은 절세위인의 출중한 령도가 안아오는 필연이다.

파감한 승리의 한해와 더불어 공화국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탁월한 령장을 모시어 더욱더 휘황할 동터오는 승리의 래일에 대한 신심과 확신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리 경 월

